

#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 목 차

요 약 / 1

---

I. 세계 경기부양책 규모 / 5

---

II. 세계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 7

---

- |    |               |
|----|---------------|
| 7  | 1. 주요 경기부양 정책 |
| 12 | 2. 국별 경기부양책   |

III. 시사점 / 40

---

**요 약**

**1. 세계 경기부양책 규모**

□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조 4,700억불 (3,4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 이는 세계 **GDP의 3.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

□ 주요국 경기부양책 현황

○ **(미국) 7,8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발효(2.17)**

- SOC 투자 등 재정지출 5,060억불, 감세 2,810억불

○ **(중국) 4조위안(5,86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08.11)**

- 인프라 확충(1조8천억위안), 재해복구(1조위안) 등

○ **(일본) 38조 6천억엔(4,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 중소기업, 서민계층,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에 초점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규모 : US\$억]

지역	국가	규모	지역	국가	규모
북미	미국	7,870	아시아 대양주	중국	5,860
	캐나다	320		일본	4,320
구주	영국	290		대만	210
	독일	940		호주	340
	프랑스	330		태국	33
	이탈리아	1,030		베트남	60
	벨기에	26		말레이시아	20
	스페인	140		인도	600
	오스트리아	73		인도네시아	60
	중남미	멕시코		745	중동아프리
아르헨티나		310	카	러시아	772
칠레		40	CIS	카자흐스탄	70
콜롬비아		240	합계		24,726

## 2. 주요 경기부양 정책

### □ 사회인프라 확충(SOC Investment)

-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 프로젝트에 6,027억불 투자
  - 이는 세계 전체 경기부양 자금의 24%에 달하는 규모
- 주요국의 사회인프라 확충 계획
  - (미국)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 확충에 1,250억불 배정
  - (중국) 철도, 도로, 공항, 전력 인프라 확충에 2,635억불 투입
  - (독일) 고속인터넷망 확충, 도로 확충 프로젝트에 258억불 투자

### □ 중소기업 지원(SME Support)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신용보증, 자금지원 등

구분	주요내용
세제혜택	·법인세율 인하, 영업손실에 대한 세금공제 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증액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자금지원	·저리 자금지원, 대출기한 연장, 융자확대 등

### □ 가계지원(Household Support)

-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보조금 제공
  - (자금지원) 가계 대상 직접적인 현금지급 :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대만 등
  - (세제혜택·보조금) 소득세 경감, 차량 및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등

### □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통화정책 기조 전환 : 긴축 → 확대
  - 과도한 경기위축 방지를 위해 각국에서 금리인하 지속

### 3. 주요국 경기부양 정책의 시사점

- 경기부양책의 경제적 효과 : GDP 성장률 기여효과 0.4~1.3% 포인트
  -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09년 G-20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0.4~1.4% 포인트 증가(IMF 분석결과)
  
- 각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시장기회 확대
  - 사회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활용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IT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적극공략 필요
      - \* 올해 4월 추진 예정인 'Global Project Plaza 2009' 전략적 활용 필요
  - 친환경 그린 프로젝트 활용
    - 각국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린 프로젝트 추진
      - \* 미국 : 전체 경기부양 예산 중 그린에너지 관련예산 약 10%
      - \* 중국 : 오염물처리 프로젝트, 자원 순환이용 시스템 등 3억불 규모 환경 프로젝트 추진
  
- 우리나라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중소기업 지원
    - 세제혜택(법인세 인하 등), 저리대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확대 필요
  - 사회안전망 확충
    - 저소득계층, 노령층,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금 확대 등 경제적 지원정책 필요
  - 고용안정
    - 직업훈련시설 확충, 신규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확대
  - 미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
    -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 제고

## I

## 세계 경기부양책 규모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2조 4,700억불(3,480조원)<sup>1)</sup> 수준

-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 적극 추진
  -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세계 경기침체 본격화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조 4,700억불 이상의 경기부양책 추진
  - 동 경기부양책은 세계 GDP\*의 3.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
    - \* IMF 발표 2008년 잠정 세계 GDP(62조541억불) 기준

## □ 주요국 경기부양책 현황

- (미국) 7,8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발효(2.17)
  - 재정지출 5,060억불, 감세 2,810억불 등 총 7,8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의회통과(2.13) → 오바마 대통령 서명(2.17)으로 법안 발효
- (중국) 4조위안(5,860억불) 규모의 재정지출계획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프라 확충(1조8천억위안), 재해복구(1조위안) 등을 골자로 하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08.11)
- (일본) 38조 6천억엔(4,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08.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서민계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8조 6천억엔 규모의 경기대책 발표

1)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재정지출 및 감세기준, 구제금융 예산제외) 집계 결과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규모]

(단위 : US\$억)

지역	국가	규모	지역	국가	규모
북미	미국	7,870	아시아 대양주	중국	5,860
	캐나다	320		일본	4,320
구주	영국	290		대만	210
	독일	940		호주	340
	프랑스	330		태국	33
	이탈리아	1,030		베트남	60
	벨기에	26		말레이시아	20
	스페인	140		인도	600
	오스트리아	73		인도네시아	60
중남미	멕시코	745		중동아프리 카	이집트
	아르헨티나	310	CIS	러시아	772
	칠레	40		카자흐스탄	70
	콜롬비아	240	합계		24,726

자료원 : Kotra 자체조사 결과

## □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 : 재정지출 확대에 주력

○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

-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규모 분석결과(자료원 : IMF), 재정지출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감세정책 비중은 30%

- 이는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세보다 높기 때문

## ◆ 재정정책 수단별 경기부양 효과(IMF)

☞ 인프라투자 등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높음

☞ 재정승수( $\Delta$ 국민소득 $\div$  $\Delta$ 재정투입) : 인프라투자(0.5-1.8), 감세(0.3-0.6)

## II

## 세계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 1. 주요 경기부양 정책

## 가. 사회인프라 확충(SOC Investment)

## □ 세계각국의 공공투자 투자규모 6,027억불

- 이는 세계 전체 경기부양자금의 2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
  - 국별로는 중국의 투자규모가 2,635억불로 가장 많으며, 미국(1,250억불), 멕시코(456억불), 아르헨티나(310억불), 독일(285억불) 순
-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국의 공공투자 계획
  - (중국) 철도, 도로, 공항, 전력 등 사회인프라 확충에 경기부양예산의 45%에 달하는 2,635억불 투입
    - ▶ 주요 프로젝트 : 향후 2년간 원자력 발전소 9기 건설, 2015년까지 15개 도시에 1,200Km 연장의 지하철 건설 등
  - (미국) 교통, 에너지, 주거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전체 경기부양 자금의 16%에 해당하는 약 1,250억불 배정
    - ▶ 주요 인프라확충 프로젝트 : 교통(480억불),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508억불), 브로드밴드 확충(72억불) 등
  - (멕시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도로, 항만, 공항 확충에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60%가 넘는 456억불 투입
  - (독일) 고속인터넷망 확충, 도로 등 SOC 프로젝트에 258억불 투입
    - \* 통독이후 舊동독지역 인프라 투자집중으로 舊서독지역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어 舊서독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전망

## [주요국의 공공투자 계획]

국가	주요내용	금액(US\$억)
미국	▪ 교통(고속도로, 고속열차, 대중교통시스템),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브로드밴드, 주거시설 등	1,250
중국	▪ 원전건설(9기), 지하철 건설(15개도시 1,200Km) 등 전력, 교통 인프라 확충	2,635
멕시코	▪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도로, 항만 공항 확충	456
아르헨티나	▪ 에너지, 광업, 통신, 교통분야 인프라 확충	310
독일	▪ 고속인터넷망 확충, 도로·철로 건설 및 보수	258
콜롬비아	▪ 광산·에너지, 주택, 교통, 통신 및 상하수도 확충	240
대만	▪ 교통망 확충, 항공단지 조성 등 12개 프로젝트 추진	150
호주	▪ 교육시설 개보수, 주택건설, 공공도로 개보수	147
프랑스	▪ 공공건물 개보수, 전력·철도인프라 확충, 지방정부 공공투자 지원 등	137
인도	▪ 고속도로, 항구, 발전 인프라 확충	104
스페인	▪ 지방정부 추진 공공사업,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103
캐나다	▪ 도로, 교량 등 기초인프라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97
이집트	▪ 상하수도,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 확충 및 항만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26
벨기에	▪ 지하철역 개보수, 철로건설 및 도로개축	26
이탈리아	▪ 철도인프라 확충에 9.6억유로(12억불) 투자	12
칠레	▪ 공공도로, 주택, 상하수도 확충프로젝트 추진	7

## 나. 중소기업 지원(SME Support)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정책 추진

○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 도산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 (미국) 연매출액 1,500만불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당기영업손실 발생시 기납부 세금 소급환급 기간 연장(2년→5년)

○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 중소기업 신용보증재원 4,000억엔 확보, 중소기업 용자(4,900엔), 중소기업 대출기한 연장 및 법인세 감세

○ (영국)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상 연기, 세금납부기한 6개월 연장, 소기업 손실에 대한 소급공제기간 한시적 연장(1년→3년)

- \* 소급공제액은 업체별 5만파운드 이내

○ (독일) KfW\*에 1,000억 유로의 Germany Fund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중소기업 지원, 공공투자, 수출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국책은행

[기타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국가	주요내용
프랑스	·국책 금융기관(OSEO)을 통해 중소기업에 2억유로 용자
베트남	·중소기업에 저리(4%)의 자금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인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U\$10백만 → U\$20백만)
멕시코	·정부구매의 20%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신탁기금 조성, 용자확대 등
칠레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17%→2%),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다. 가계지원(Household Support)

-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불경기 서민생활 안정 및 극심한 소비침체 방지

주요국의 가계지원 시책

○ (미국) 세금혜택 및 보조금 지급

- ▶ 근로자 1인당 400불, 부부당 800불 세액공제 : 3년간 1,162억불 규모
- ▶ 올해 말까지 49,000불 이하의 신차 구매시 판매세 및 물품세 공제
- ▶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7,500불 → 8,000불)

- (일본) 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및 주민세 경감(2조엔), 75세 고령자 대상 의료비 지원(2,000억엔)
- (프랑스) 저소득층 350만명에 대해 연간 200유로 규모의 생계비 지원
- (이탈리아) 연소득 22,000유로 이하의 저소득 가계 및 연소득 35,000유로 이하의 장애인 부양가족에 200~1,000유로 지급

#### [기타 국가의 가계지원 시책]

국가	주요내용
호주	· 저소득층에 세금감면 형태로 보너스 지급 ☞ 연소득 A\$80,000 이하 : A\$950, A\$80,000-A\$90,000 : A\$650, A\$90,000-A\$100,000 : A\$300
태국	· 월급여 14,000(400불) 이하 근로자 대상 2,000바트(57불) 지급
대만	· 전 국민에게 1인당 3,600 대만달러(약 15만원) 상품권 지급
캐나다	· 저소득층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에 C\$4억(3.2억불) 지출
멕시코	· 저소득 가정의 저효율 가전제품 교체지원에 7.5억페소(U\$52백만) 지출
칠레	·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감면 확대,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 (가구당 62불)

## 라.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 통화정책 기조 전환 : 긴축 →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과도한 경기위축 방지 및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금리인하 지속
- 주요국 금리동향 : 정책금리를 최저수준으로 인하
  - (미국) '07.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0.0~0.25%로 인하
  - (중국) 통화정책 방향을 '총체적 긴축'에서 '적절한 완화'로 전환 → '08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금리인하(現기준금리 : 5.31%)

- (영국)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단행 → 현재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 설립이후 최저 수준인 1.0%

[주요국 금리인하 추이]

국가	정책 금리	'06년말	'07년말	'08년말	현재	최근 변동일 (조정폭, bp)
미국	Federal funds rate	5.25	4.25	0-0.25	0-0.25	08. 12.16 (-75 ~ -100)
캐나다	Overnight funding rate	4.25	4.25	1.50	1.00	09. 1.20(-50)
유로지역	Refi rate	3.50	4.00	2.50	2.00	09. 1.15(-50)
영국	The official Bank Rate	5.00	5.50	2.00	1.00	09. 2. 5(-50)
러시아	Refinancing rate	11.00	10.00	13.00	6.75	08.11. 28(+100)
일본	Overnight call rate	0.25	0.50	0.10	0.10	08. 12.19(-20)
중국	1 year working capital rate	6.12	7.47	5.31	5.31	08. 12.22(-27)
인도	Repo rate	-	7.75	6.50	5.50	08. 1. 2(-100)
호주	Cash rate	6.25	6.75	4.25	3.25	08. 2. 3(-100)

자료원 : 한국은행

## 2. 국별 경기부양책

### 가. 미국

#### □ 경기부양에 7,870억불 투입

○ 美 의회는 2.13일 7,870억불 규모의 상·하원 단일 경기부양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가결

- 동 법안은 5,060억불(64%)의 재정지출과 2,810억불(36%) 규모의 세금 감면으로 구성

\* 재정지출 5,600억불은 연방정부 세출 3,080억불과 주정부·지방정부 지원금 1,980억불로 구성

- 상·하원 단일 경기부양법안 규모는 하원법안(8,190억불) 및 상원법안(8,380억불)에 비해 다소 축소

\* 주택·자동차 구매 세제혜택 및 가구당 급여세제혜택(Payroll Tax Credit) 삭감이 주요 요인

○ 상·하원 경기부양법안 비교

- (하원) 1.28일 8,19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가결(찬성 244표, 반대 188표)

▶ 재정지출액 5,440억(66%), 감세액 2,750억(34%)

▶ 민주당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

- (상원) 2.10일 8,38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가결(찬성 61표, 반대 37표)

▶ 재정지출액 5,460억(65%), 감세액 2,930억(35%)

▶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고용창출과 함께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을 중시

#### (美 경기부양법안 발효 내역)

- 상·하원 단일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2.13) 후 백악관 이송
-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서명(2.17)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 美 경기부양법안 규모는 7,870억불로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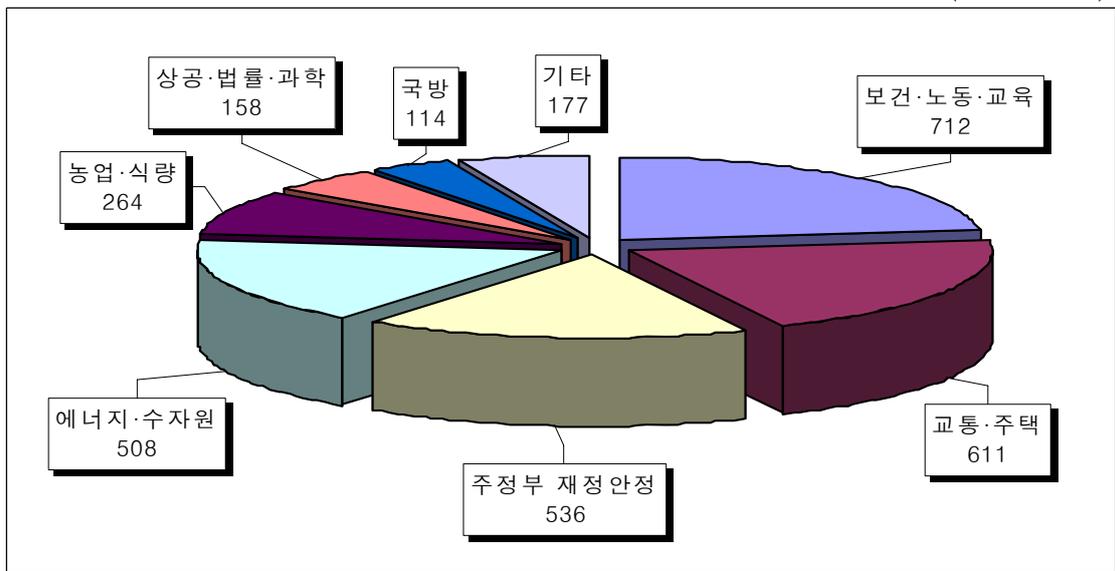
- 이는 '08년 미국 경상GDP(잠정치)의 5.5% 수준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계획하였던 7,750억불과 거의 동일

\* 경기부양책 규모(7,870억불) ÷ 2008년 경상GDP(143,340억불) = 5.49%

○ 재정지출 : 5,060억불(연방정부 지출 3,080억불 + 주정부지원 1,980억불)

[재정지출 항목별 예산]

(단위 : US\$억)



주 : 연방정부 세출예산(3,080억불) 기준

① (보건·노동·교육) 소외계층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Title I) 지원확대 (130억불), 특수교육 프로그램인 Special Education/IDEA 지원(122억불), Pell 장학금 지급확대(156억불) 등

② (주거·교통) 교통인프라 확충에 주력

▶ 주요 프로젝트 : 고속도로(275억불), 고속열차(80억불), 대중교통시스템(84억불), 철로확충 (13억불) 등

### ③ (에너지·수자원) 전력인프라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원(110억불), 내후성(Weatherization) 증강 프로그램(50억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60억불) 등

\* Smart Grid : 전력부문에 IT기술을 적용, 송배전망을 지능형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

### ④ (상공·법률·과학) 통신인프라 확충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 ▶ broadband 인터넷망 확충(47억불), 지구온난화·바이오연료·퓨전 에너지 연구지원(16억불), NASA 지원(4억불) 등

#### ◆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안 주요내용

- ☞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900억불), 의료기록 전산화 작업(208억불), 실직자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251억불), 실직보험기간 연장(392억불), 육아지원(180억불)

#### ○ 감세정책 : 2,810억불 규모의 세금감면 추진

##### [감세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가계지원	·근로자 1인당 400불 또는 부부당 800불 세금공제 * 대상 : 연소득 75,000불 미만(싱글기준), 부부는 150,000불 미만
기업지원	·연매출액 1,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대상 당기영업손실에 대한 기납부 세금 소급환급 기간 연장(2년→5년) ·1년간 공장 및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주택구입 지원	·'08.4월-'09.6월 기간동안 첫 주택 구입자 대상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7,500불→8,000불)
자동차 구입지원	·'09. 12월말까지 신차(49,500불미만) 구입시 판매세 및 물품세 공제 * 지원대상 : 연소득 125,000불 이하, 부부는 250,000불 이하

**美 경기부양법안 내 Buy American 조항**

**(주요내용 및 미국 국내외 여론)**

◆ 美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는 **SOC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을 100%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상원 수정안에는 **적용범위를 공산품으로까지 확대**

☞ 적용제외 : ①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②미국산 철강사용으로 프로젝트 비용이 25%이상 상승하는 경우, ③미국산 철강이 부족한 경우

◆ 동 조항에 대해 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미국 내 에서도 **WTO 협정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 대두**

\* 오바마 대통령도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 피력

**(최종 수정사항)**

◆ **Buy American 조항 완화**

☞ 최종 법안에서는 ‘Buy American 조항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들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 유지**

○ 美 연준은 지난 1. 28일 개최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0.0~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美 연준은 '07.9월 이후 지속적 금리 인하, '08.12.16일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0.0~0.25%로 인하

- 이는 금융시장의 기능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2008년 이후 미국 정책금리 변동내역]**

변동일자	'08.1.22	'08.1.30	'08.3.18	'08.4.30	'08.10.8	'08.10.29	08.12.16
정책금리	3.50%	3.00%	2.25%	2.00%	1.50%	1.00%	0.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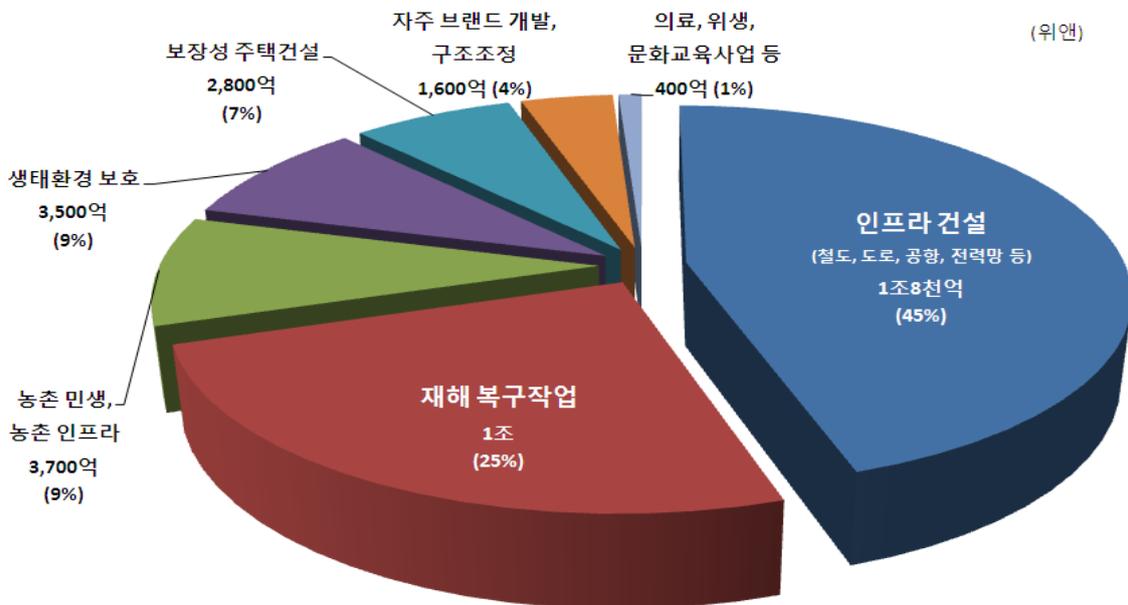
자료원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나. 중국

### □ 향후 2년간 총 4조 위안(5,860억불) 규모의 재정 지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08. 11월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4조 위안 중 철도·도로·공항 등 인프라 확충에 1조8천억 위안을(전체 투자액의 45%) 투자하고 재해 복구작업에 1조 위안(25%)을 투입

[중국 경기부양책의 부문별 투자계획]



자료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경기부양 예산 조달 계획 : 중앙정부 예산은 1조8천억 위안
  -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중 1조8천억원은 중앙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예산을 사용하거나, 자금차입을 통해 확보할 계획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과 투자금액

항목	주요내용	금액(위안)
보장성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건설 지원 및 낙후주택 재건 사업 강화</li> <li>- 서민 대상 저가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li> <li>- 판자촌 개발사업, 향후 3-5년간 200만명 신규주택 입주</li> </ul>	2,800억 (7.0%)
농촌 민생 및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인프라 건설 강화</li> <li>- 메탄가스 이용률 제고, 음용수 안전사업 및 도로 건설 가속화</li> <li>▪ 전력망 개선 및 수리·관개시설 확충</li> <li>- 中 수리부 200억 위안 규모 투자계획 발표</li> </ul>	3,700억 (9.0%)
SOC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도로, 공항, 전력망 등 확충</li> <li>- 2년간 원자력발전소 9기, '15년까지 15개 도시 지하철 1,200Km 건설</li> </ul>	18,000억 (45.0%)
의료, 위생, 문화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서부 내륙지역 학교 및 종합문화센터 건설</li> <li>▪ 빈곤층 의료서비스체계 확립</li> <li>-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인 양성 강화,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등</li> </ul>	400억 (1.0%)
생태환경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농촌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li> <li>▪ 산림자원 보호,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량 감소</li> </ul>	3,500억 (9.0%)
자연재해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피해지역 재건사업 강화</li> <li>- 2009년 지진피해 재건에 200억 위안 투입 예정</li> </ul>	10,000억 (25.0%)
자주브랜드 개발,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하이테크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li> </ul>	1,600억 (4.0%)
농민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곡 및 농기구 보조금 지급 확대</li> <li>- 2009년도 식량 최저수매가격 상향조정, 농민 보조금 지급(가전제품 구입농민에게 가격의 13% 지급)</li> </ul>	-
증치세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세금부담 경감</li> <li>- 연간 1,200억 위안 규모의 기업 세금부담 경감</li> <li>- 전력, 가스, 석유, 화학, 제지, 의류, 전자기기 등 제조업체 수혜 전망</li> <li>▪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 기업 설비투자 부담 경감</li> </ul>	-
신용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폐지</li> <li>▪ 신용대출 규모를 합리적 수준까지 확대</li> </ul>	-

#### □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중 1,000억 위안 규모의 1차 투자계획 확정

○ '08년 4분기에 확정된 1차 투자계획 규모는 1,000억 위안으로 주로 농촌 인프라, 교통 인프라, 사회사업, 주택건설 등에 투자

- 주요 항목별 투자금액(단위 : 위안) : 농촌인프라(303억), 교통인프라(280억), 사회사업(130억), 주택건설(100억) 등

#### [중국 경기부양책 중 기확정된 1차 투자계획 주요내용]

프로젝트	주요내용	금액(위안)
농촌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분야 : 농촌 식수공정, 대형 관개지국 물절약 개조 공정, 강하구 수처리, 오수 펌프처리장 개조 등</li> <li>▪ 농업분야 : 개간지 건물개조, 유목민 주택공정, 동물방역 체제 구축, 농산품 품질관리 시스템 등</li> <li>▪ 서부농촌지대 우정 영업망 구축</li> </ul>	303억
교통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로, 고속도로, 농촌도로, 중서부 지선공항 및 서부 간선공항 확충</li> </ul>	280억
사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 중서부 지역 농촌 학교개조, 중등 직업교육 인프라 건설, 특수 교육학교 건설 등</li> <li>▪ 위생 : 위생인프라 개선, 중점 중의병원 건설 등</li> </ul>	130억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 주택보급, 국유 임업구 및 간척지 건물 개조 등</li> </ul>	100억
친환경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중점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추진, 자원절약 순환이용 프로젝트, 공업오염물 처리 프로젝트 등</li> </ul>	25억
하이테크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테크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li> <li>-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국가 BT 산업기지 및 우주 항공 R&amp;D 센터 건설</li> </ul>	16억
설비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 유류 생산기업의 재고설비 건설</li> <li>▪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성 등 동북지역에 식량 건조설비 건설</li> </ul>	10억

□ 감세를 통한 내수소비 진작

-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인지세, 자동차 구매세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주요 감세조치 및 감세 추정액]

구분	주요내용	연간 감세액
개인소득세	▪ 면제기준 인상 : 2,000위안 → 3,000위안('09.1)	360억위안
증치세	▪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편 - 공업부문, 상업부문의 특례세율을 3%로 인하 - 고정자산 투자에 지출한 비용 세액공제	1,200억위안
인지세	▪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 : 0.3% → 0.1%('08.9)	900억위안
자동차 구매세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구매세 인하 : 10.0% → 5.0%('09.1-12)	260억위안

자료원 : 대외경제연구원(KIEP), 언론보도 종합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 확대 통화정책 추진

- 통화정책 기조변화 : '총체적 긴축' → '적절한 완화'

-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을 위해 '08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
- 금리인하와 함께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인하하여 통화량 공급을 확대

[중국의 주요 금융완화 조치]

완화조치	주요내용
금리인하	▪ '08. 9월 이후 4차례 기준금리* 인하 - 7.47%('08.8) → 7.20%('08.9) → 6.66%('08.10) → 5.58%('08.11) → 5.31%('08.12) ▪ 이자경감 효과는 약 5,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지급준비율 인하	▪ 최근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6.0% → 15.5%로 인하('08.12) - 중소형 은행은 14.0%에서 13.5%로 인하

\* 기준금리 : 1년만기 운전자금 대출금리(One year working capital rate)

자료원 :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언론보도 종합

## 다. 일본

### □ 38조 6천억엔(4,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 일본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두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 (1차 대책) '08. 8월에 중소기업과 서민계층,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11.7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 (2차 대책) '08. 10월에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26.9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인 '생활대책' 발표
    - \* 동 경기부양책은 '98년 오부치 정권의 경기부양책(27조엔) 이후 최대규모

###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금액
1차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 신용보증재원 4,000억엔, 중소기업 법인세 감세</li> <li>▪ 생활안정 대책 :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원 2,000억엔, 의료비 자가부담액 동결 등</li> <li>▪ 지방교부금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916억엔 지원</li> <li>▪ 저소득층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 2조엔</li> <li>▪ 기타 : 주택용자 감세제도 연장, 원유세 특례교부금 등</li> </ul>	11.7조엔
2차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급부금 지원 : 2조엔 규모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세금환급 명목으로 가계에 직접 지급</li> <li>▪ 주택대출 감세 : 주택용자금 공제상한을 600만엔까지 확대하여 5,000억엔 규모의 감세효과 유발</li> <li>▪ 지방교부금 : 지방정부에 6,000억엔 지원</li> <li>▪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주말과 휴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액을 1,000엔으로 조정, 평일 주간통행료 30% 할인</li> <li>▪ 중소기업 용자(4,900엔) 및 대출기한 연장</li> </ul>	26.9조엔

□ 경기부양책 주요 특기사항

○ 2조엔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 민간소비 진작

-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2조엔을 현금 또는 상품권을 형태로 가계에 직접 지급
-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8,000엔(약 57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침체된 소비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경기부양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08. 10월에 1차 경기부양책 추진에 필요한 정부재정 확보를 위해 1.8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 올해 1월에는 2차 경기부양책 예산확보를 위해 4.8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

□ 경기하강 가속화 방지를 위해 금융 완화조치 시행

○ 정책금리 인하('08.12.19) : 0.3% → 0.1%

-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유도목표를 기존 0.3% 내외에서 0.1% 내외로 인하함과 동시에 대출 기준금리도 0.5% → 0.3%로 인하

○ 장기국채 매입한도 및 매입대상 확대

- 매입한도를 연간 1.44조엔 → 16.8조엔으로 확대하고 매입대상에 30년 국채, 변동금리부 국채 및 물가 연동 국채를 추가

○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 조치

- '09. 4. 30일까지 한시적으로 CP(기업어음) 매입방식을 환매조건부 방식에서 단순매입방식으로 변경

## 라. EU

### ◆ 2,000억유로 규모(EU GDP의 1.5%)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합의('08.12.12)

-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율 인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 유예(GDP의 3% 이내), 고용지원, 기업투자 촉진 등
- ☞ EU 회원국별로 1,7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300억유로는 유럽투자은행(EIB)에서 계획을 수립
- ☞ 향후계획 :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3월에 확정하기로 합의

### ◆ 통화정책 : 2005. 11월 이후 최저수준 금리 유지

- ☞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 15일 정책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

## 1) 영국

### □ 200억 파운드(29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 영국 정부는 '08. 11.24일 부가세 인하, 공공투자 조기집행,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부가세 인하)**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08. 12월부터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15.0%로 인하**
    - \*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라 약 120억 파운드(25조원) 규모의 감세효과 발생
  - **(공공투자)** 2010/11년 회계연도에 책정된 **30억 파운드 규모의 공공투자 예산을 조기집행** → 고속도로 건설, 공영주택 건설, 교육시설 보수 등에 사용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상(21% → 22%) 연기, 세금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소기업 손실의 소급공제기간 연장(1년 → 3년)
  - **(기타내용)** 자녀 양육수당 인상(주당 18.8파운드 → 20파운드), 연금수급자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원(1인당 60파운드) 등

- 영국 GDP의 1.4%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영국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전망
  - 2009년 말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180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영국 GDP 8% 수준으로 **EU 국가 중 최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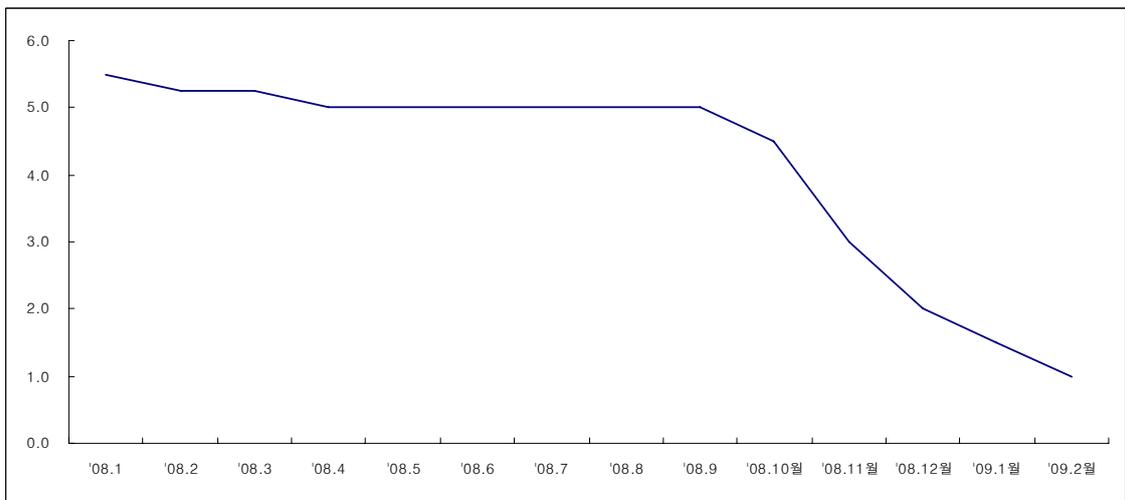
☞ **영국정부의 재정적자 보전대책 : 세율 및 국민보험금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인상 : 40% → 45%
- 알코올, 담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세율 인상
- 국민보험금을 0.5% 인상

□ **통화정책 : 사상 최저수준으로 정책금리 인하**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단행 : 2.0%→1.5%(1.8), 1.5%→1.0%(2.5)**
  - 현재 금리(1.0%)는 1694년 영국 중앙은행 설립 이후 최저 수준
  - 금리인하 배경 : 올해 경제성장률이 -1.1%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신용경색 또한 심화되고 있기 때문

[영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원 : 한국은행

## 2) 독일

### □ 경기부양에 730억 유로(940억불) 투입

○ 독일 정부는 '08. 11월 이후 두차례에 걸쳐 총 73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1차 대책) '08. 11월에 SOC 투자, 기업투자 촉진, 세율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23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2009~2012년 동안 4년에 걸쳐 230억 유로 투입

- (2차 대책) 올해 1.23일에 공공투자 확대, 감세, 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규모(유로)
1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인프라 확충에 20억유로 투자</li> <li>▪ 자동차세 면제 : '09~'12년 동안 감세규모는 14억유로 * 저탄소 차량은 2년, 일반차량은 1년간 면제</li> <li>▪ 제조업체 대상 세금 공제조건 개선(감세규모 39억유로)</li> <li>▪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 13억유로</li> <li>▪ 감세 확대 : 128.5억유로</li> <li>▪ 기타 : 지역경제구조 개선, KfW*를 통한 산업지원 강화</li> </ul>	230억
2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인프라 및 교육시설 개선에 180억유로 투자 * 주요 투자분야 : 교육시설, 병원, 도로, 고속인터넷망 구축</li> <li>▪ 감세정책 : 2010년말까지 90억유로 감세효과 발생 * 소득세 면제대상 소득규모 확대 : 7,834('09), 8,004('10)</li> <li>▪ 기업 자금조달 지원 : KfW에 1,000억유로 펀드 조성</li> <li>▪ 자동차 산업지원에 15억유로 책정 * 9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09년 신차 또는 출고된지 1년 이하의 중고차 구입시 2,500유로 지급</li> <li>▪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에 200억유로 지원</li> </ul>	500억

\*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중소기업 지원, 공공투자, 수출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독일 정부소유 개발은행

### 3) 프랑스

#### □ 경기부양에 260억 유로(330억불) 투입

- 프랑스 정부는 지난 22일에 공공투자, 기업지원, 주택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26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프랑스 경기부양책 주용내용]

구분	주요내용	금액(유로)
공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직접투자 41억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청사, 대학교, 교도소, 박물관 등 공공건물 개보수</li> </ul> </li> <li>▪ 공기업 투자 40억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설비 확충 25억유로, 철도인프라 확충 7억유로 등</li> </ul> </li> <li>▪ 지방정부 공공투자 지원 25억 유로</li> </ul>	106억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대상 공공주택 10만채 건설(6억유로)</li> <li>▪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보수 비용지원 (2억유로)</li> <li>▪ 신규 주택구매용 0% 모기지 대출(6억유로) 등</li> </ul>	17억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직원 신규고용시 1년간 사회보장세 면제(7억유로)</li> <li>▪ 실업자 전업교육 및 구직지원(5억유로)</li> </ul>	12억
저소득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350만명에 대해 연간 200유로 규모의 생계비 지원(7억유로)</li> </ul>	7억
자동차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저탄소* 배출 차량 구매시 300~1,000유로 지원</li> </ul>	2억
중소기업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2억유로 융자</li> </ul>	2억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감세 38억유로, 법인세 소급환불 18억유로, 부가세 환급기간(年→月) 단축 등</li> </ul>	114억

\* 주행거리 1Km당 탄소 배출량이 130g 이하

#### 4) 기타 국가

##### □ 이탈리아 : 5년간 800억 유로(1,030억불) 투입

- 이탈리아 정부는 '08. 11월에 5년간 8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 발표
  - 저소득층 지원(패밀리 보너스), SOC 투자, 기업지원 등이 핵심내용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지원) 연소득 22,000유로 이하의 저소득 가정 또는 연소득 35,000유로 이하의 장애인 부양가족에 200~1,000유로 지급
    - \* 동 지원책에 책정된 예산은 24억 유로
  - (특별감세) 연소득 30,000~35,000 유로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및 특별수당에 대한 감세 확대
  - (SOC 투자) '09년에 9.6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인프라 확충
  - (기업지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부과 축소, 기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환급 조치 시행

##### □ 벨기에 : 2009~2010년 동안 20억 유로(26억불) 투입

- 벨기에 정부는 '08. 12월초에 2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이와 관련, 약 5억유로 규모의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대부분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를 조기 집행하는 것임
  - 주요 프로젝트는 △ 지하철역 미화공사(830만유로), △ 신규 철로개설 (3,650만유로), △ Leopold III 도로 개축공사(4,500만유로) 등

##### □ 스페인 : 110억 유로(140억불) 투입

- 스페인 정부는 '08. 11월에 공공투자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110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동 정책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비진작 및 11.0%를 넘어선 높은 실업률 해소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 (공공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80억 유로를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사업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원
- (자동차산업 지원)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향상, 고용증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8억유로 지원
- (기타) 환경 및 에너지 절약(6억유로), R&D(5억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4억유로) 등

□ 오스트리아 : 57억 유로(73억불) 투입

○ 오스트리아 정부는 '08. 10월 이후 두차례에 걸쳐 57억 유로 규모의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발표

- (1차 대책) '09~'10년 동안 사회인프라 확충, 기업지원, 에너지 효율 증진 등에 매년 평균 10억 유로 지출

\* 연간 지출내역 : 정부 직접지출(1.5억유로), 금융지원(4억유로), 지급보증(5억유로)

- (2차 대책) 사회인프라 구축 등 재정지출 및 감세정책

▶ 재정지출 : 대규모 공공투자 시행(8.75억유로), 주택 난방설비 개선(1억유로), 고용지원(1.5억유로), 기업 연구개발 지원(1억유로) 등

▶ 감세정책 :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세제개혁(5.7억유로), 개인 소득세율 인하, 의약품 부가가치세 인하(20% → 10%) 등

마. 아시아대양주 지역

□ 호주 : A\$524억(340억불) 투입

○ 호주 정부는 '08. 10월 이후 두차례에 걸쳐 총 724억 호주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1차 대책)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연금수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지출 규모는 A\$104억
- (2차 대책) 사회인프라 확충 및 저소득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A\$420억을 투입

○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

- 공공투자,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시설 투자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 제고

구분	주요내용	규모(A\$)
1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 연금수혜 확대에 A\$48억 지출</li> <li>▪ 중산층 및 저소득 가구에 대상 A\$39억 지원</li> <li>▪ 주택구입 지원금 A\$15억</li> <li>▪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충 A\$1.9억</li> </ul>	104억
2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설 개보수(A\$14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학교 : 도서관 및 다목적 공간설치</li> <li>- 고등학교 : 실험실 및 어학교육시설 설치</li> </ul> </li> <li>▪ 주택보급 확대 및 개보수 지원(A\$6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 건설 : 21,000 가구 입주</li> <li>- 기존주택 개보수</li> </ul> </li> <li>▪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A\$39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0만 가구 대상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천장개보수 지원</li> <li>-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조금 확대</li> </ul> </li> <li>▪ 공공도로 개보수(A\$9억)</li> <li>▪ 저소득층, 농가, 학생 대상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li> </ul>	420억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

-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2.3일 금리인하 단행 : 4.25% → 3.25%
- 이는 호주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이며, 지난 2001년도 경기침체기의 금리(4.25%)에 비해서도 1.0% 낮은 수준

□ 태국 : 1,150억 바트(33억불) 투입

- 태국 정부는 지난 1.13일에 1,150억 바트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동 정책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지원, 연금 및 의료혜택 확대, 공공서비스 무료제공 등

항목	주요내용	예산(백만바트)
1	▪ 공무원 및 노동자들의 연금 및 의료혜택 확대	19,139.50
2	▪ 15년간 무료교육 실시(유치원-고등학교)	19,000.00
3	▪ 월급여 14,000바트 이하 근로자 대상 2,000바트 지급	18,970.40
4	▪ 부락단위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급	15,200.00
5	▪ 6개월간 버스·열차 무료이용, 수도·전기 소량 사용시 무료	11,409.20
6	▪ 60세 이상 노령계층을 위한 연금	9,000.00
7	▪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자 교육	6,900.00
8	▪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의료봉사자 지원	3,000.00
9	▪ 비상상황 대비 준비금	2,391.00
10	▪ 농업 관개수로 확충 프로젝트	2,000.00
11	▪ 하위직 경찰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	1,808.00
12	▪ 마을 단위의 도로 등 기본시설 정비	1,500.00
13	▪ 보건소 시설개선	1,095.80
14	▪ 저가제품의 유통경로 개선	1,000.00
15	▪ 관광산업 진흥	1,000.00
16	▪ 소규모 저수지 건설	760.00
17	▪ 식품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500.00
18	▪ 국가이미지 개선	325.00

○ 통화정책 :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기조 변경

- 태국 중앙은행은 '08. 상반기까지는 긴축통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 작년 12월에 기준금리를 2000년 이후 최대폭인 1.0%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 : 2.75% → 2.0%

## □ 베트남 : 60억불 투입

- 베트남 정부는 6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08. 12월 초에 1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경기부양책 규모를 60억불 규모로 확대
  - 동 경기부양책은 세금감면, 사회복지 증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역은 미발표
- 기타 경기부양 관련 조치 :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  
→ 대상업체 : 자본금 59만불 이하, 고용인원 300인 이하
  -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대출 → 최대 12개월 동안 4% 이자율로 자금융자  
\* 상기 금융지원을 위해 10억불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
  - (신용보증) 11백만불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대상업체 : 자본금 114만불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 (의료 및 교육분야 투자) 21억불 규모의 정부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의료 및 교육분야 투자 프로젝트 추진
- 통화정책 : '08. 10월 이후 6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08. 10월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 최근 금리인하는 지난 2.1일에 단행되었는데, 8.5%에서 7.0%로 1.5% 포인트 인하  
\* 현재 기준금리(7.0%)는 '08.10월(14.0%)과 비교해 불과 3개월만에 절반으로 인하됨

□ 말레이시아 : 70억 링깃(20억불) 투입

- '08. 1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70억 링깃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감세보다는 SCO 프로젝트 등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

항목	주요내용	예산(백만링깃)
1	▪ 25,000세대 규모의 중저가 주택건설 및 재건축	1,400
2	▪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금 및 대출확대	1,500
3	▪ 지방도로 및 소규모 교량건설	1,100
4	▪ 학교, 병원 및 주요도로 개보수	500
5	▪ 소수민족 대상 교육확대	400
6	▪ 경찰서, 군부대 숙소 개보수	500
7	▪ 도심 통근열차 및 버스 운행시스템 개선	500
8	▪ 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구축	400
9	▪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300
10	▪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200
11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100
12	▪ 비즈니스구역 확대 및 도시 미화	100

- 기타 경기부양 관련 조치 : 주식투자 활성화
  - 국영 자금관리공사(Valuecap)에 100억 링깃(28억불)의 기금을 조성,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 통화정책 : 금리인하 지속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12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2.50%로 0.75% 포인트 인하
    - \* '08.11.24일에도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바 있음.

□ 대만 : 7,151억 대만달러(210억불) 투입

- 대만정부는 2.1일 4년간 2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7,151억 대만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이중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3,200억 대만달러(95억불)인데, 이는 대만 GDP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
  - (공공투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에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80%에 달하는 5,000억 대만달러(150억불) 투자
    - \* 이와 관련, 대만정부는 전국 교통망 확충, 항공단지 조성 등 12개 공공 프로젝트 추진
  - (상품권지급)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18일에 전국민에 1인당 3,600 대만달러(15만원)의 상품권 지급

☞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GDP 증가효과는 0.66-1.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대만 정부는 상품권 지급의 GDP 증가효과가 1.0%에 달한 경우, 추가 상품권 지급을 고려하겠다고 언급

- (수출확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약 85억 대만달러(3억불)를 투입, 수출 확대정책(신정화방안) 추진
- 통화정책 : '08. 9월 이후 다섯 차례 금리인하
  - 대만 중앙은행은 작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다섯차례에 걸쳐 인하 : 현재 금리는 1.5%
  - \* 금리추이 : 3.625%('08.8) → 3.5%('08.9) → 3.0%('08.10) → 2.75%('08.11) → 2.0%('08.8) → 1.5%('09.1)

#### □ 인도 : 3조 루피(600억불) 투입

- 인도 정부는 '08.12 이후 두차례에('08.12월, '09.1월) 걸쳐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총 규모는 3조 루피
- 동 경기부양책은 인도 GDP의 5%에 달하는 규모로서 인도 정부는 '09. 3월까지 3조 루피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 (1차대책) : 인프라 확충, 조세감면, 수출기업 지원 등

[1차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인프라 확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항구, 발전 인프라 확충에 20억불 지원</li> <li>▪ 발전용 나프타 수입관세 폐지</li> </ul>
내수소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준비율 인하 : 7.5 → 6.5%</li> <li>▪ 주택대출 금리인하 : 13.0% → 11.5%</li> <li>▪ 가계대출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 9.5% 고정, 가구당 최대 4만불 지원 등</li> </ul> </li> </ul>
수출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기업 금융 및 세제지원(4억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집약형 수출산업 위주로 저리(2%)의 수출금융 지원</li> <li>- 국내소비세 환급</li> </ul> </li> <li>▪ 철광석 수출세(5%) 폐지</li> </ul>

- (2차대책) : 대외상업차입(ECB) 자율화, 관세환급 확대 등

[2차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인프라 확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 승인 하에 대외상업차입(ECB) 최대한도 폐지</li> <li>▪ 주택건설 프로젝트 자금 확보를 위해 대외상업차입 허용</li> <li>▪ India Infrastructure Finance(IIF)의 회사채 발행규모 확대 : 6억불→15억불</li> </ul>
내수소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급 확대</li> <li>▪ 대중교통 업체의 버스구매 지원 : 신차 구매시 기존버스에 대해 50% 추가 감가상각 허용</li> <li>▪ TMT Bar 및 구조재에 부과되었던 상계관세 폐지</li> </ul>
수출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을 통해 500억루피 규모의 수출입 자금지원</li> <li>▪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500만루피 → 1,000만루피)</li> <li>▪ 환차손 기업 지원 : 관세환급유예제도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li> <li>▪ 니트섬유, 자전거, 농업수공구 등에 대한 관세환급 강화</li> </ul>

○ 통화정책 : 금리인하 지속

- 인도 중앙은행은 '08.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  
\* 금리추이 : 7.5% → 6.5%(’08.12), 6.5% → 5.5%(’09.1)

□ 인도네시아 : 71조 루피아(60억불) 투입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71조 루피아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주요내용은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감세확대, △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 확충, △ 유가 및 전기요금 인하 등

○ 통화정책 : 올해 들어 두차례 금리인하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지속 : 9.25%  
→ 8.75%(’09.1.7), 8.75% → 8.25%(’09.2.4)

## 바. 미주지역

□ 캐나다 : C\$400억(320억불) 투입

○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1.27일 향후 2년간 C\$400억(320억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 발표

- 캐나다 재무장관은 필요할 경우 자금을 더 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 추가 경기부양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

○ 경기부양 프로젝트 주요내용 : SOC 확충, 감세, 주거시설 개선 등

구분	주요내용	규모(C\$)
사회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 사회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교량, 하수구 시설 개보수(C\$40억)</li> <li>- 그린인프라 펀드 조성(C\$10억) : 신재생에너지 육성</li> <li>- 체육시설 개선(C\$5억)</li> </ul> </li> <li>▪ 원주민(First Nations) 사회 인프라 개선(C\$1.5억)</li> <li>▪ 대학교, 연구시설 등 지식인프라 개선(C\$38.6억)</li> </ul>	120억
세금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5년간 C\$200억 규모의 개인소득세 경감</li> <li>▪ 비과세 소득인 최저 개인소득 기준 상향조정</li> <li>▪ 향후 5년간 법인세 인하(C\$20억)</li> </ul>	220억
주거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me Renovation Tax Credit : 한 가정당 최대 C\$1,350 보조</li> <li>▪ ecoEnergy Retrofit : 20만 가구의 에너지절약 도모(C\$3억)</li> <li>▪ 첫 주택구입자에 최대 C\$750 감세혜택, 주택구입 용자금 한도 상향조정(C\$20,000 → C\$25,000)</li> <li>▪ 향후 2년간 C\$2억을 투자하여 Social Housing 개선</li> <li>▪ 저소득층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C\$4억)</li> <li>▪ 상하수도 등 주거 관련시설 개선(C\$20억)</li> </ul>	78억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자 고용보험 수령액,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li> <li>▪ 향후 2년간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연장 : 45주 → 50주</li> </ul>	2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산업 지원, 원자력 에너지 육성 등</li> </ul>	

○ 통화정책 :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

-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1.20일 이미 50년만에 최저치였던 기준금리 (1.50%)를 1.0%로 다시 인하
- 현재 기준금리(1.0%)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3.5% 포인트 하락

□ 멕시코 : 10,792억 페소(745억불) 투입

- 멕시코 정부는 올해 1.7일 경기부양 정책인 10,792억 페소 규모의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을 발표
- 동 정책은 △고용지원, △가계지원,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	규모(페소)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고용 프로그램 확대(22억페소)</li> <li>▪ 취약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프로그램(20억페소)</li> <li>▪ 실업대비 퇴직적립금 접근성 확대</li> <li>▪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적용확대(26억페소)</li> <li>▪ 국가고용(Service Nacional de Empleo) 확대(12.5억페소)</li> </ul>	80.5억
가정경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발유 가격 동결 및 LP가스요금 인하</li> <li>▪ 저소득 가정의 저효율 가전제품 교체지원(7.5억페소)</li> <li>▪ 근로자주택기금 및 공무원주택기금 확대(74억페소)</li> </ul>	81.5억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전기요금 동결</li> <li>▪ 정부구매의 20%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li> <li>▪ 중소기업 개발 신탁기금 조성(50억페소)</li> <li>▪ 중소기업 용자 21% 확대(1,760억페소)</li> <li>▪ 중소기업 자문서비스 확대(70억페소)</li> <li>▪ 농업용자 10%, 직접용자 26% 확대(2,090억페소)</li> </ul>	3,970억
SOC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프라프로젝트(PNI) 예산 조기집행(5,700억페소)</li> <li>▪ 공기업(석유공사 등) 투자 확대(310억페소)</li> <li>▪ 국영개발은행과 국가인프라펀드를 통한 용자확대(650억페소)</li> </ul>	6,660억

○ 통화정책 : 2006년 이후 첫 금리인하

- 멕시코 중앙은행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1.16일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 8.25% → 7.75%

□ 칠레 : 40억불 투입

○ 칠레 정부는 지난 1.5일 4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동 경기부양책의 목적은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 최소화, 실업률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 주요내용은 공공투자, 기업 금융지원, 저소득층 지원, 고용안정 등

구분	주요내용
공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로, 주택, 상하수도 확충 프로젝트(7억불)</li> <li>▪ 2009년 동안 인지도 한시적 폐지</li> <li>▪ 임업지원법 700조에 따른 임업부문 인센티브 제공</li> <li>▪ 국영 구리공사(Codelco)에 대한 자금지원</li> </ul>
기업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인하 : 중소기업(17%→2%), 대기업(17%→10%)</li> <li>▪ 칠레산업진흥청(Corfo)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li> </ul>
저소득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가구당 약 62불</li> <li>▪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확대</li> </ul>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18-24세 청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li> <li>▪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혜택 제공</li> </ul>

○ 통화정책 : 금리 인하

- 칠레 중앙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 1% 포인트 인하 : 8.25% → 7.25%

□ 아르헨티나 : 1,110억 페소(310억불) 투입

- 아르헨티나 정부는 '08.12.15일 1,110억 페소 규모의 공공사업 프로젝트 발표
- 프로젝트는 추진 분야는 에너지, 광업, 통신, 교통부문 등

▶ 에너지 : 석유가스개발에 3억불, 바이오연료 개발에 2억불 투자
▶ 광업 : '09년에 14억불을 투자해 254개의 광업 프로젝트 개발, 2015년까지 생산량 50% 확대 및 고용창출
▶ 통신 : '09년에 11억불 민간투자 유도, 위성방송 개발에 2,500만불 투자
▶ 교통 : 도로, 고속도로, 교량 확충 및 유지보수에 8억불 투자, 철도시스템 현대화 추진

○ 기타 경기부양 관련 조치

- 해외도피자본 국내 반입시 소득세 감면 : 반입 신고시 세율을 35%에서 8%로 인하
- 불법고용 자진신고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주세 혜택
  - \* '09년에는 현행 고용주세의 50% 적용, '10년에는 75% 적용

□ 콜롬비아 : 55조 페소(240억불) 투입

-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1.22일 사회인프라 확충에 55조 페소(정부지출 23조 페소, 민간투자 32조페소)를 투자하는 경기부양책 발표
  - 투자부문 : 광산·에너지, 주택, 교통, 도로, 통신, 상하수도 등
- 통화정책 : 최근 두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 기준금리 추이 : 21.83%('08.1) → 21.02%('08.12) → 20.47%(현재)

사. 중아·CIS지역

□ 이집트 : 150억 파운드(27억불) 투입

- 이집트 정부는 '09. 6월말까지 150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 발표
  - 경기부양 자금 중 120억 파운드는 인프라 확충, 나머지 예산은 감세 및 산업육성에 사용될 계획
-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인프라 확충	▪ 상하수도,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 확충 및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에 120억 파운드 투자
감세정책	▪ '09년 동안 자본재에 한해 부가가치세(10%) 한시적 폐지 ▪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관세 하향조정(대상품목 : 약 250개) ▪ 자유무역지대 입주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부활 ▪ 자동차 수출세 2% 폐지
산업육성	▪ 중소기업 자금지원, 산업 현대화 지원, 교육훈련 지원 ▪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경기부양 관련 조치
  - 올해 말까지 산업용 가스 및 전기요금 동결 및 공장용 부지 임대료 지불 유예

□ 러시아 : 772억불 투입

- 러시아 정부는 최근 약 772억불 규모의 실물경제 위기대책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은 석유수출세 및 법인세 인하(24%→20%), 정부대출 및 보증, 채무상환 지원 등
  - 지원부문별 배정예산(자료원 : 국제금융센터) : 세금인하(128억불), 대출보증(96억불), 대외채무 상환지원(500억불), 기타(48억불)
  - 대출보증 관련, 러시아 정부는 작년 12월 말에 운송, 소매, 건설, 정유 등 259개 상장기업에 대해 정부대출 및 보증을 승인

□ 카자흐스탄 : 70억불 투입

-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13일 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동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원유기금(Oil Fund)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지원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총 규모는 100억불
- 재정지출 항목별 예산
  - 주거시설 확충(30억불), 중소기업 육성(10억불), 농업지원(10억불), 사회인프라 확충(10억불)
- 기타 경기부양 관련 조치 : 세법개정
  - 법인세 및 부가세 인하 : 법인세(30% → 20%), 부가세(13% → 12%)
  - 일부제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자선활동을 위한 수입품 및 의료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09. 1월부터 부가세 면제
- 통화정책 : 금리인하 지속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08. 12월 기준금리를 10.5%에서 10.0%로 0.5% 포인트 인하
  - \* '08. 7월에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 : 11.0% → 10.5%

## III

## 시사점

## 1. 세계 경기부양책의 경제적 효과

## □ 경기부양책의 GDP 성장률 기여효과는 0.4~1.3% 포인트

○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올해 G-20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0.4~1.3% 포인트 증가 전망(IMF 분석)

- 다만, 2010년도 경제성장률 기여효과는 0.1~0.3% 포인트로 하락

\* 이는 재정정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서 개도국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

## [G-20 국가 경기부양책의 경제성장률 기여효과]

	Size 2/ (In percent of GDP)			Growth Impact 3/ (In percent)			
	2008	2009	2010	2009		2010	
Argentina 4/	0.0	1.3	n.a.	0.3	- 1.1	-0.1	- -0.2
Australia	0.7	0.8	0.3	0.2	- 0.7	-0.1	- -0.4
Brazil	0.0	0.3	0.2	0.1	- 0.2	0.0	- 0.0
Canada	0.0	1.5	1.3	0.4	- 1.3	0.1	- 0.4
China	0.4	2.0	2.0	0.6	- 2.1	0.5	- 1.4
France	0.0	0.7	0.0	0.2	- 0.6	0.0	- -0.1
Germany	0.0	1.5	2.0	0.4	- 1.2	0.3	- 0.9
India 5/	0.0	0.5	n.a.	0.2	- 0.5	-0.1	- -0.3
Indonesia	0.0	1.3	1.1	0.4	- 0.8	0.0	- 0.0
Italy	0.0	0.2	0.1	0.1	- 0.2	0.0	- -0.1
Japan	0.0	1.4	0.4	0.4	- 1.3	-0.3	- -0.7
Korea	1.0	1.5	0.3	0.5	- 1.3	-0.3	- -0.8
Mexico	0.0	1.0	n.a.	0.3	- 1.0	-0.2	- -0.6
Russia	0.0	1.7	n.a.	0.6	- 1.7	-0.6	- -1.7
Saudi Arabia	2.4	3.3	3.5	1.3	- 4.2	0.2	- 0.6
South Africa 6/	1.3	1.3	n.a.	0.4	- 1.3	-0.4	- -1.3
Spain	3.1	1.1	0.3	0.3	- 0.9	0.0	- 0.1
Turkey	0.0	0.0	n.a.	0.0	- 0.0	0.0	- 0.0
United Kingdom	0.2	1.4	-0.1	0.4	- 1.0	-0.4	- -1.0
United States	1.1	1.9	2.9	0.6	- 1.4	0.4	- 1.2
<b>Total (PPP weighted average)</b>	<b>0.5</b>	<b>1.4</b>	<b>1.3</b>	<b>0.4</b>	<b>- 1.3</b>	<b>0.1</b>	<b>- 0.3</b>

자료원 : IMF

## 2.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시장기회 확대

### 가. 사회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 □ 각국에서 사회인프라 확충을 주요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사용

- 세계 각국은 고용창출 및 소비·투자 진작효과가 높은 사회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추진
  - 경기부양 측면에서 감세보다는 인프라투자의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
    - \* 재정승수( $\Delta$ 국민소득 $\div$  $\Delta$ 재정투입) : 인프라투자(0.5~1.8), 감세(0.3~0.6)
- 선진국·개도국 모두 주요한 경기부양 정책수단으로 사회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등 공공사업을 추진
  - 과거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은 감세정책에, 개도국은 SOC 투자에 집중하였으나,
  - 최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따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경기부양 정책으로 SCO 투자를 적극 활용
    - \* 다만, 경기부양예산 중 SOC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개도국이 높음.

#### ◆ 각국의 경기부양예산 중 SOC 투자 비중

- ☞ 선진국 : 미국(16%), 프랑스(42%), 독일(27%), 캐나다(30%), 호주(43%) 등
- ☞ 개도국 : 중국(45%), 이집트(81%), 대만(71%), 멕시코(61%), 아르헨티나(100%) 등

#### □ 각국의 사회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활용전략

-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우리기업은 풍부한 해외공사 경험 및 EPC 부문의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참여가능성 충분
  - ▶ 선진국 시장 : Sub-Contractor 참여 및 프로젝트 관련기자재 납품에 주력
  - ▶ 개도국 시장 :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직접참여에 집중

○ **(IT 인프라)** 우리기업의 IT 경쟁력을 활용, broadband 보급확대, 건물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등 **IT 연관 프로젝트 참여**

▶ 특히 한-미 FTA를 활용, 美 broadband 확충 프로젝트(47억불), 스마트 그리드(110억불) 등 IT관련 프로젝트 진출확대

\* 한-미 FTA 발효시 한국내 조달실적 인정, 입차 최저금액 하향조정 등 특혜조건 적용

◆ 『Global Project Plaza 2009』 사업의 전략적 추진 필요

☞ 2009. 4월 추진예정인 'Global Project Plaza 2009' 각국의 경기부양 관련 사회인프라 프로젝트에 특화하여 추진 : 유망프로젝트 설명회 + 상담회

## 나. 친환경 그린 프로젝트

### □ 각국에서 친환경 Green Project 추진

○ 미국, 중국 등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개발, 오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 **Green Project 추진**

- (미국) 전체 경기부양예산 중 그린에너지 관련예산 10.4%

- (중국) 25억위안(3억불)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

\* 자원절약 순환이용 프로젝트, 공업오염물처리 프로젝트 등

○ 유럽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차량교체 비용지원

- (독일) 9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또는 출고 1년 이하의 중고차량 구입시 2,500유로 지원

- (프랑스)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저탄소 배출차량\* 구입시 300~1,000유로 지원

\* 저탄소 배출차량 : 주행거리 1Km당 탄소 배출량이 130g 이하인 차량

◆ 각국의 그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국내업체 주력 공략분야

☞ 에너지 고효율 제품 : 냉난방기기, 건축자재, 전구 등에서 관련제품 수요 증가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 풍력발전용 단조제품 및 기능성 부품 유망

☞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정책에 따라 부품수요 증가

### 3. 우리나라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시사점

#### □ 사회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적극 추진

○ 본격적인 경기침체기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 필요

- 경기불황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비교적 큰 건설업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 필요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16.6명, 제조업 ; 10.1명

#### □ 사회안전망 확충 : 저소득계층, 노령층, 실직자 지원 확대 등

국가	주요내용
미국	·저소득층 대상 세금혜택, 실직자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251억불), 실직보험기간 연장(392억불) 등
캐나다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연장 : 45주 → 50주, 실직자 고용보험 수령액 확대 등
일본	·저소득층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 : 총 2조엔(220억불) ·75세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원(2,000억엔), 의료기 자가부담액 동결 등
중국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액(과세대상 최저소득) 인상 : 2,000위안 → 3,000위안 등
영국	·자녀 양육수당 인상(주당 18.8파운드 → 20파운드), 연금수급자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원(1인당 60파운드) 등
프랑스	·저소득층 350만명에 대해 연간 200유로 규모의 생계비 지원 등
이탈리아	·연소득 22,000유로 이하의 저소득 가정 및 연소득 35,000유로 이하의 장애인 부양가족에 200-1,000유로 지급 등
호주	·저소득층에 대해 195불-617불 세금혜택 제공, 고령층 연금수혜 확대에 31억불 지출 등
칠레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가구당 62불) 등

## □ 고용안정을 위해 다각적 정책 추진

-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방지 및 재취업 지원정책 등을 통해 고용시장 안정에 주력

국가	주요내용
독일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2010년까지 200억유로 지원
프랑스	·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신규직원 고용시 1년간 사회보장세 면제, 실업자 전업교육 및 구직지원
호주	·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충에 1.3억불 지출
캐나다	· 실직자 고용보험 수령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연장(45주→50주)
멕시코	· 취약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프로그램 확대(1.4억불),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적용확대(1.8억불)
칠레	·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 제공

## □ 현금지급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의 소비진작

- 일부 국가에서는 침체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 : 일본, 이탈리아, 태국, 대만 등
  - (일본) 2조엔(30조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가계에 직접지급 : 가구당 수령액은 평균 38,000엔(57만원)
  - (이탈리아) 연소득 22,000유로 이하의 저소득 가정 및 연소득 35,000유로 이하의 장애인 부양가족에 200~1,000유로 지급
  - (태국) 월소득 56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8만원 지급
  - (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 상품권 지급에 따른 경기부양효과(GDP증가율)는 0.66~1.0%로 추정
    - \* 대만 정부에서는 상품권 추가지급도 검토 중

□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 법인세 및 부가세 인하

국가	주요내용
영국	·'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인하(17.5%→15.0%),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상(21%→22%) 연기
오스트리아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 20% → 10%
캐나다	·'09년부터 5년간 법인세 인하(16억불)
칠레	·법인세 인하 : 중소기업(17%→2%), 대기업(17%→15%)
카자흐스탄	·법인세 인하(30%→20%), 부가세 인하 (13%→12%)

□ 미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

○ 단기적 대응정책 외에도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에도 적극투자

- (미국) 과학기술 및 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

- \* 지구온난화·바이오연료·퓨전 에너지 연구지원(16억불), NASA 지원(4억불)
- \* 주정부 재정안정 예산을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부양법안에 포함

- (독일) 공공투자 예산(200억유로)의 65%를 교육시설 확충에 배정

- (캐나다) 대학교, 연구시설 등 지식인프라 개선에 31억불 투자

□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

○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간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 약화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영국 및 유럽에서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유럽, 영국의 정책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 %p)

구분		2007년말	2008.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 12일
E C B 정책금리	(A)	4.0	4.25	4.25	3.75	3.25	2.5
Euribor(3개월 만기)	(B)	4.68	4.96	5.28	4.76	3.85	3.28
스프레드(B-A)		0.68	0.71	1.03	2.01	0.60	0.78
영란은행 정책금리	(C)	5.5	5.0	5.0	4.5	3.0	2.0
Libor(3개월 만기)	(D)	5.99	5.75	6.3	5.84	3.91	3.19
스프레드(D-C)		0.49	0.75	1.30	1.34	0.91	1.19

자료원 : 한국은행

## ○ 유동성 함정 우려제기

- 각국 중앙은행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기대했던만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소비·투자 등의 실물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경기부양수단으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작성자

◆ 통상전략팀 고일훈 과장

Global Issue Report 09-003

##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9년 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